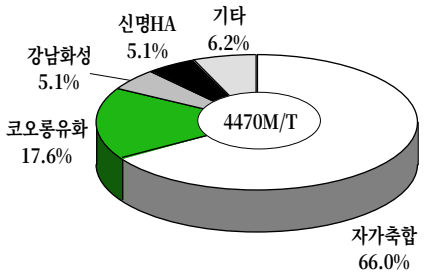
함침용수지, 가격하락 불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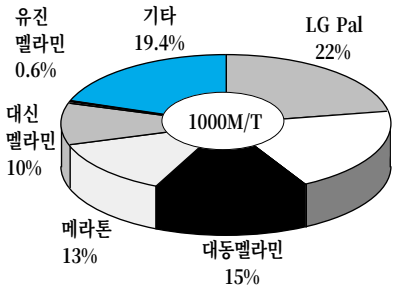
자가축합비중 확대따라 … 내수 4470톤 중 66%인 2950톤 자가축합

국내 함침용수지 시장규모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공급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함침용수지는 지, 포, Glass Wool 등에 함침시킴으로써 PCB, 화장판, 낚시대, 강화목, 단열재, 자동차용 Air필터, Oil필터 Seperater 등 고강도, 내열성, 내약품성 등을 요하는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PCB판용 수지는 전기 · 전자부문의 내수 및 수출부진으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수요기업들의 자가축합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원료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함침용수지 생산기업들의 시장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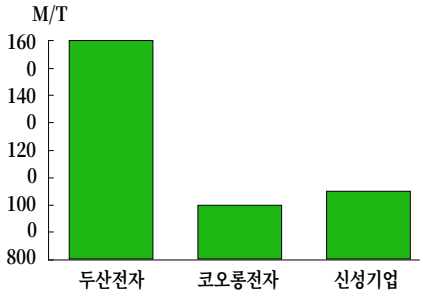
국내 함침용수지 시장점유율(1995)



화장판용 함침수지 수요현황



PCB판용 함침수지 사용량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함침용수지의 월평균 사용량은 4470톤으로 강남화성이 230톤, 코오롱유화가 785톤, 신명HA가 230톤을 내수시장에 공급해 각각 5.1%, 17.6%, 5.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기업들의 자가축합 사용량이 2950톤으로 66.0%에 달할 뿐만 아니라 한국알스트롬, 전일여지 등의 월평균 사용량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가축합비중이 점차증가, 함침용수지를 공급하고 있는 3사가 차지하고 있는 27.8%의 시장점유율마저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PCB판용 수지는 95년까지 우진포리머와 강남화성으로 부터 150톤, 50톤을 공급받아오던 두산전자가 96년들어 전기 · 전자부문의 수출부진으로 사용량이 감소됨은 물론 자가축합 확대로 96년5월 이후 컨트롤레진에 한해 월 50톤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함침용수지 생산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B판용 수지의 수요기업 및 수요량은 두산전자의 월 1600톤을 비롯해 코오롱전자, 신성기업이 코오롱유화, 우진포리머로 부터 각각 400톤, 500톤씩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꽃꽂이용 foam(Oasis)의 경우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 가야그린테크, 아세아상사가 각각 월 80톤, 20톤, 2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샘터, 실로암은 전량 자가축합을 통해 물량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6년9월 꽃꽂이용 foam 가격은 Kg당 1200원으로 95년말 1400원에 비해 16.7% 하락했다.
이는 원료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페놀 국내가격이 95년말 톤당 84만원, 96년7월 78만원,

9월 75만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르말린 가격 또한 연초대비 10%이상 하락한 Kg당 170원에 거래되는 등 원료가격이 하락 ·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무용가구, 싱크대 등 가구부문에 사용되는 화장판용 함침수지의 사용량은 LG Pal 220 230톤, 대동멜라민 150톤, 메라톤 130톤, 유신멜라민 200톤, 대신멜라민 100톤, 유진멜라민 60톤 등 1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판 시장은 최근 LG의 자회사인 LG Pal이 OEM방식을 통한 시장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이 영세기업인 화장판 시장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화장판함침용 수지 가격은 95년말 Kg당 850원에서 96년9월 현재 5.9% 하락한 8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태양합성, 유원포리머가 임가공형식으로 생산,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6/10/28>